

영암군, 대불산단 근로자 맞춤형 선제검사



영암군은 대불산단 내·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 검사는 5월 영암군 확진

자 9명 중 8명이 삼호지역 외국인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이 지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유도하고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어 코로

이달 확진자 대부분 삼호지역 외국인근로자 감안 숨어있는 감염자 찾아 코로나19 확산 차단 목적

나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검사다. 군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불산단 중심지인 표충형공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을 긴급 파견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점심시간에도 검사를 진행하며 특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주말(토)에도 운영하는 등 검사제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등에

검사계획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검사 독려 마을 방송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검사 참여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검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불산단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영암=조혜경기자



목포 삼학도에 5성급 이상 관광호텔 유치

목포시, '평화누리 유원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목포시가 삼학도의 옛 석탄부두 부지 등을 유원지로 조성한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4일까지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8월 사업계획서 접수 등을 거쳐 9~10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전남도 승인 등을 거쳐 내년에 삼학도 유원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삼학도 주변 간척으로 조성된 삼학도 석탄부두는 물량감소, 삼학도 복원화사업,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기능이 폐쇄된다.

시는 목포의 산업화에 거점이었던 삼학도를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이번 공모에서 국제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한 컨벤션시설

을 포함한 5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시의 입장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체류형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삼학도 전체 면적 57만4000여㎡ 중 옛 해경부두에서 옛 석탄부두로 이어지는 육지부 11만여㎡와 공유수면 9만5000㎡를 유원지 시설로 결정하고, 5성급 이상 관광호텔을 비롯해 바다전망데크,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성면적의 50%를 공공시설로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원지 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이미 조성된 대·중·소삼학도 외에도 평화의숲, 넬스만델라 기념공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무안군, 오늘까지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실시

고질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

무안군은 27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년도 이월 체납액 30억

7800만원 중 11억 8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체납액 세목 비중이 높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에 대한 고액 고질체납자의 차량과 대포 차량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 상반기 차량 199대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차량 52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2800만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 위주로 야간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추적해 압류할 계획"이라며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등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포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20년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5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현장방문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적극적 예산지원 약속



영광군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22일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육성정책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의 현장감 있는 생생한 대화를 듣고 "영광군이 청소년을 위해 많은 예산 투자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보았다"며 청소년 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약속했다. 김준성 군수는 청소년의 달 5월에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 준 도지사에게 감사사를 표시했다.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2013년 개원해 매주 운영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e-모빌리티·SW·코딩 등 다양한 교육과 서울 궁 투어, DMZ 탐방 캠프 등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 영광군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화~금요일은 09:00~21:00, 토요일은 09:00~18:00 연중 운영한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받는다

함평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9만7,5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함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46% 상승했으며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용도지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함평=김광훈기자

목포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개강

벤처지원센터·시립도서관 등서 무료 운영...매월 수시 모집

목포시가 오는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작년에 이어 상황에 따라 방문교육이나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벤처지원센터 내 전산교육장,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교육생은 매월 수시 모집한다. 과정은 ▲디지털기초(스마트기기, 비대면 화상수업) ▲디지털

생활(교통·금융·키오스크) ▲디지털심화(스마트 오피스 활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홈페이지(<http://디지털배움터.kr>)와 대표전화 1566-610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6개소에서 시민 2,5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박정수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